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      |                      |              |  |
|------|----------------------|--------------|--|
| 대학명  | 톈진외국어대학교             | 기숙사비         | 하루 기준 60위안/한학기   |
| 파견지역 | 천진                   | 기숙사비<br>납부방법 | 일시불(○) 분할납부(○)<br>일시불로 할 경우 3일을 더 줌/<br>분할납부시 매달 지불, 예택 없음 |
| 파견기간 | 2019.8.26.-2020.1.17 | 기타비용         | 보증금 100+방카드 50   |

## ▣ 파견자 정보

|    |     |    |       |
|----|-----|----|-------|
| 성명 | △△△ | 학과 | △△△학과 |
| 성별 | 여   | 학년 | 4     |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 1 . 12

파견자 : △△△ (서명)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반은 크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지만 세세하게 단계별로도 나뉘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 고급반은 준고급반-고급1반-고급2반) 자신의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수업마다 다르지만 유학생 수가 워낙 많아서 각 반에 인원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대략 20명정도) 수업은 제일 이른 시간인 1교시가 8시에 시작하고 수업시간은 1시간 40분(쉬는 시간은 썸의 재량이지만 보통 5분-10분정도)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이며 이후 2시부터 마지막 3교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의 종류에는 준고급반이었던 저의 경우 정독/듣기/열독/회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반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음). 정독수업은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문법,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열독수업은 hsk시험에서 독해부분을 연습하는 수업으로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기보다는 글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 성분, 종류에 대해 배웁니다.

회화수업에서는 ppt 발표가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각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다른 반에서는 연극도 있었음). 모든 수업에는 과제가 조금씩 있고, 예습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친절하십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업의 내용을 잘 따라가면 무리 없이 잘 볼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 1. 위치&교통

톈진지역의 중심부에 있으며, 학교 앞에 바로 유명한 관광지인 오대도가 있습니다. 변화가에 나가려면 버스(2위안)를 타거나, 자전거(15-20분)를 타고가거나,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가항도 가까워서 학교의 위치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학교근처에 버스정류장도 많고, 자전거도 많아서 어딜 갈 때마다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후

2학기 기준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엄청 센 편이다. 비가 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으며,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또한 겨울이 지날수록 미세먼지가 있는 날들이 많아지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편의시설

학교 주변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백화점도 있어서 먹을 곳도 많고, 학교 내 식당건물지하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과일가게, 미용실, 택배 받는 곳, 문구점, 슈퍼, 세탁소, 프린트 및 복사 가능한 곳 등이 있어 모든 면에서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 비 용       | 하루 60위안  | 내부구조 | 2인1실 |
|-----------|--|------|------|
| 기숙사 규정 사항 | 저녁 11시 이후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 이름을 적게 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      |      |
| 주요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끔씩 물의 색이 투명하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샤워 필터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 있으니 굳이 한국에서 들고 오지 않아도 됨)</li> <li>2.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 소음에 주의해야 합니다.</li> <li>3. 와이파이가 없어서 스스로 공유기를 구매해 연결해야 합니다.</li> </ol> |      |      |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는 방마다 다른데 홀수방은 오대도 풍경을 볼 수 있지만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고, 짝수방은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라 따뜻하고 밝습니다. 또한 가운데 방 쪽이 가에 있는 방보다 훨씬 넓습니다.

전등을 켜도 어두운 편이어서 스탠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짝수 중 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옷장은 비교적 좁기 때문에 옷을 넣을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은 무난한 편이지만 가끔씩 녹물이 나오거나 혹은 투명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면 샤워기헤드와 필터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매 층마다 따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 앱을 따로 깔아서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세탁기는 검정색 옷을 빨았을 경우 먼지가 묻어 나오는 정도인데 심각한 편은 아니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세탁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공용주방입니다. 냉장고가 2대가 있는데 공용이라 그런지 냄새가 심하고 더럽습니다.

이밖에 전자레인지 1대, 전기 인덕션 2대가 있는데 역시 공용이라 더러운 편입니다. 라면이나 혹은 커피, 차를 마실 경우에 필요한 뜨거운 물을 받는 곳도 바로 이 주방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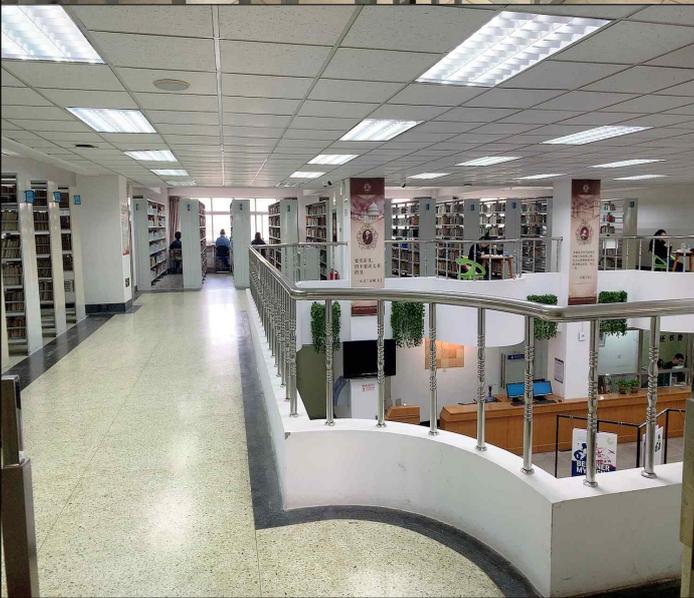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이 사진은 강의실 사진으로 듣기수업을 제외 하고는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습니다. 매 수업마다 반이 비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앞쪽에 있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수업을 하고 어떤 수업에서는 칠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학생들이 듣는 층은 9층,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가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기숙사와 가까이 있는데 총 6층까지 있으며, 시험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시간은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10시까지입니다.



학생식당은 1,2,3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2층에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3층은 학생식당느낌 보다는 일반 식당 같은데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있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생각 외로 메뉴가 다양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만약 중국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도 한식을 파는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를 붙여놓아 찻푸바오로 학생증을 연결시켜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당은 찻푸바오 결제만 가능합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텐진외국어대는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많은 만큼 중국인 친구보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 반만 해도 약 10개국에서 온 친구들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친구라면 다른 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중국친구들과 소통하고, 문화교류를 할 기회는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친구와 교류를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중교류회가 딱 한번 있었는데 아쉽게도 11월 정도에 매우 늦게 진행을 하여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도 부족했고, 일회성이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중 언어동아리도 있었는데 이미저도 12월, 중강할 때 즈음에 만들어져 결국 흐지브지 되고 말았고, 다음 학기에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중인 한국인도 100명이나 되기에 초반에 쉽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선택참여로 학기 중에 한 번씩 유학생전체를 대상으로 베이징(고궁, 천단공원)문화탐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장소는 매학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한 번쯤 다른 지역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 경험해 볼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여행지에서 더 많이 말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큰 땅으로 다양한 기후,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말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학기의 생활을 마치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의 우정, 중국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얻어가는 것 같이 기쁩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라면 꼭 한번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